

# 소프트웨어의 受託品質

얼마전 일본의 소프트웨어업무계 제휴사에 업무협약의차 출장 갔다가 그곳 개발관리 부서장으로부터 자료 한 가지를 받았는데, 그는 앞으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업무 제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受託開發에 있어서의 品質保證에 관한 국제표준규격(ISO9000-3)의 요지였고, 이것이 또한 일본공업규격(JIS)이 될 것이므로 일본내에 있어서도 그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종래로부터의 품질보증규격(ISO 9000-시리즈)이 있으나 이것은 주로 하드웨어 제품의 제조를 의식한 것이었는데 대하여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신탁개발에 관하여 개발, 공급과 보수에 적용하기 위한 품질보증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규격화(ISO 9000-3)되므로서, 앞으로 우리의 해외 소프트웨어의 신탁개발이나 수출등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그 특징적인 것은 委託者와 受託者 쌍방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는 것과 품질을 심어넣는다는 發想으로 전공정에서 리뷰를 행하고, 문서화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수탁자에게는 이런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과 품질보증규정(매뉴얼)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적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金會模

(주)한국데이터뱅크 본부장

일본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 品質認證이 제도화되면,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많아 지고, 이 제도화의 영향은 하청 수탁자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청 수탁자가 개발한것에 대해서도 품질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며, 결국 업계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도입과 통용에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차체에 우리도 이러한 國際標準化의 動向을 신속히 파악, 소화하여 적용하므로서, 소프트웨어부문의 품질보증체제를 정착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 해외소프트웨어의 수탁개발이나 수출등의 활로개척에도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